

# 골목상권 활력 '지역화폐의 힘'...7900억 썼다

## 광주은행 지난해 이용실태 분석

광주시민들은 지난 한 해 광주상생카드(지역화폐)를 이용해 골목상권에서 총 790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할인 혜택 덕분에 쓸쓸한 오후 주머니 노릇을 한 광주상생카드는 올 6월까지 할인 혜택이 연장된다.

7일 광주상생카드 발급을 위탁받은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은 상생카드를 이용해 광주지역에서 총 7905억원 쓴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평균 사용액은 336만 7748원이었다.

총 이용건수는 2930만건에 달했는데, 전체 발급 계좌(168만건)에 대한 평균 이용건수는 128건이었다.

상생카드는 충전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예금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나뉜다.

선불카드는 총 158만3447좌(4768억원)를 발급 받고 956억원을 충전했다. 이 가운데 지역민들은 87.0%에 달하는 4977억원을 사용했다.

체크카드는 9만5894좌를 발급 받았고 2928억원

1인당 평균 128건·337만원...슈퍼·음식점 등서 49.3%

40대 1845억 최다...상생카드 10% 할인 6월까지 연장

을 썼다. 총 발급좌수는 선불카드가 149만좌 정도 많았지만 평균 이용건수는 체크 116건·선불 12건으로 체크카드가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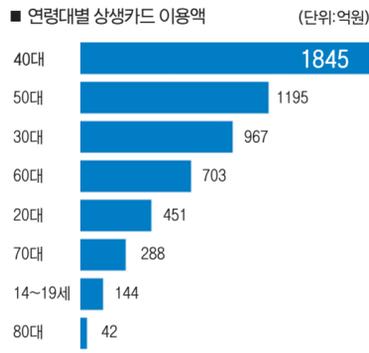
연령대별로 상생카드 이용액을 비교해보니 5분의 1 가까이 40대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용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이용액(7905억원)의 23.3%를 차지했다. 50대가 15.1%(1195억원)로 뒤를 이었고, 30대 12.2%(967억원), 60대 8.9%(703억원), 20대 5.7%(451억원), 70대 3.6%(288억원), 14~19세 1.8%(144억원), 80대 0.5%(42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용도는 28.7%(2270억원)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상생카드 취지에 맞게 이용액의 절반 가까이(49.3%)는 동네 슈퍼와 음식점·제과점·정육점 등에서 쓰였다.

상생카드 이용액의 5분의 1(20.7%)에 달하는 1636억원이 유통매장에서 쓰였다. 슈퍼마켓 이용



액이 11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199억원, 농협 하나로클럽 98억원, 농·축협 직영매장 77억원이 뒤를 이었다.

유통매장에 이어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이 18.1%

(1434억원)으로 많았고 병원·약국(15.9%·1254억원), 제과점·정육점 등 음료식품업(10.5%·829억원), 학원(8.0%·633억원) 등 순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이용 금액의 73.2%를 차지했다. 주유소 등 연료판매점(4.6%·367억원), 이마트·사우나 등 보건위생업(4.3%·337억원), 의류(2.4%·189억원), 레저용품(2.1%·16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액이 가장 적은 업종은 보험(82만원)으로 비중이 0%대였고, 숙박업(0.1%·6억5300만원), 문화·취미(0.4%·34억원), 여행(0.6%·46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 기간을 지난 연말에서 올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주상생카드는 전년 발행 총액(863억원)의 10배에 달하는 84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가계 긴급생계비, 긴급재난 지원금 등 2500억원대 각종 정책 자금 지급, 국비 지원 확대, 특별할인 기간 연장 등으로 발행과 이용 규모가 커졌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6000억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31.68 (+63.47)
↑ 코스닥	988.86 (+7.47)
↑ 금리(국고채 3년)	0.964 (+0.011)
↑ 환율(USD)	1087.30 (+1.70)

# 3031.68

### 코스피 증가 기록 갈아치워 개미 1조 팔고 기관 1조 순매수

7일 '개미 투자자'들이 6일 1조1000억원 넘게 팔아치웠는데도 코스피 증가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뚫었다.

이날 3000 돌파는 기관들의 1조원 넘는 순매수가 원동력이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3055.28까지 오르는 등 2%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을 마쳤다.

전날 1조3742억원을 순매도하며 코스피를 끌어내린 기관들은 이날은 반대로 1조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3000선 안착을 이끌었다.

반면 전날 2조원 넘는 순매수 공세를 펼쳤던 개인들은 이날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며 1조1000억원 넘게 팔았다. 외국인은 1264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 거래량은 14억9652만주, 거래대금은 26조8160억원에 달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7.47포인트(0.76%) 상승한 988.86으로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경총 '청년공제' 지원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광주경제지총협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청년의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와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청년층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인력 확보 등 효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경총은 지난해 932명을 취업 연계하고 청년공제 사업을 지원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062-654-3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美에 농식품 수출때 '식품이력추적정보' EU행 우유·계란 식품엔 '시설인증서'

### aT, 달라진 농식품 수입제도

미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려면 올해부터 식품이력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럽연합 국가에 우유·계란이 함유된 식품을 보내려면 시설인증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았다.

aT 측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별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브렉시트 최종 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kati.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자만 써도 덜 추워요 7일 '북극발 한파'로 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리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모자매장은 오는 17일까지 겨울용 방한모자를 20~50% 할인 판매한다. 머리는 체온이 가장 잘 빠져나가는 곳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전KDN, 교육부 '교육기부 대상' 수상

한전KDN은 교육부가 주최한 '2020년 제9회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전KDN은 지난 2017년 말 공기업 최초로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육청과 소프트웨어(SW) 교육 관련 산·학·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전KDN은 지역 대학생을 소프트웨어 교육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은 지역 중·초교에 배치해 교육

을 펼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대표적 프로그램인 'SW교육 선순환 학점과정'은 지역 대학생 88명을 소프트웨어 강사로 키워냈다.

이들 강사가 파견된 학교는 총 30개교로, 519명 학생들이 코딩 교육 등을 받았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